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정 미 라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지도교수 이 인 숙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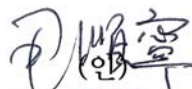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정 미 라

정미라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 원 장 윤순녕 
부위원장 정재원 
위 원 이인숙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미혼남녀의 안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34세 미혼남녀로 근접 모집단은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 등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현재 교제 중이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100커플(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3월 5일에서 4월 7일까지 연구에 동의한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Web survey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chi-square test, t-test,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OVA, Duncan 사후검정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미혼커플의 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관계 연령, 현재까지 이성교제 상대자 수와 성관계 상대자 수는 남녀차이가 없었다. 미혼커플의 51.5%는 주 1회 이상 성관계를 가지며, 41%는 첫 만남 후 한 달 이내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에서 65.5%는 거의 항상 피임을 하고 있었고, 피임 방법으로는 59.5%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75%, 여성은 73%는 본인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을 실제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피임 방법의 결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미혼커플의 성태도는 남성 65.57점, 여성 59.82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개방적이었으며($t=3.89, p<.01$), 성적 자율성은 여성 52.67점, 남성 50.89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t=-2.07, p<.05$).
- 3) 남성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이 어릴수록, 첫 성관계 시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r=.22, p<.05$), 피임 빈도가 낮았다($r=.22,$

p<.05). 또한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았다($r=.23$, $p<.05$).

- 4) 여성의 경우 첫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임신경험이 낮고($r=-.21$, $p<.05$), 피임 빈도가 높으며($r=.30$, $p<.01$), 안전한 피임 방법($r=.28$, $p<.01$)을 사용했다. 또한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고($r=.31$, $p<.01$), 안전한 피임 방법($r=.28$, $p<.01$)을 사용했다.
- 5) 커플 내 성태도($r=.27$, $p<.01$)와 성적 자율성($r=.21$, $p<.05$)은 남녀 간 상관관계가 있어, 성태도가 개방적인 남녀가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 자율성이 높은 남녀가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의 피임 빈도가 높고($r=.37$, $p<.01$), 성적 자율성($r=.33$, $p<.01$)이 높을수록 남성이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미혼커플의 성행동에 남녀차이가 없으며, 혼전 성관계가 빈번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관계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커플을 대상으로 피임실천과 안전한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혼커플의 안전한 성행동의 실천으로 성 관련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미혼커플,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

학 번 : 2010-20440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3. 용어의 정의	4
II. 문헌고찰	6
1. 미혼남녀의 성 행동	6
2. 미혼남녀의 성 태도	10
3. 미혼남녀의 성적 자율성	13
III. 연구의 개념적 기틀	17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17
IV. 연구방법	18
1. 연구설계	18
2. 연구대상	18
3. 연구도구	19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21
5. 자료분석	24

V. 연구결과	25
1. 미혼커플의 일반적 특성 및 교제 특성	25
2. 미혼커플의 성행동	28
3. 미혼커플의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33
4.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	34
5. 미혼커플의 성적 자율성 차이와 피임 결정	41
VI. 논의	44
1.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 양상	44
2.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 관련요인	47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51
VII. 결론 및 제언	52
1. 결론	52
2. 제언	54
참고문헌	55
부록	61
Abstract	68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26
Table 2.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s	27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exual behaviors	30
Table 4.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between males and females	33
Table 5.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males	36
Table 6.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females	39
Table 7.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couples	40
Table 8. Differences of sexual autonomy by contraception decision of participants	42
Table 9.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decision according to sexual autonomy of females	43

List of Figures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17
Figure 2. Data collection procedure	2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1년 국내의 초혼 평균연령이 남성 27.8세, 여성 24.8세이던 것이 2011년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집계되었으며(통계청과 여성가족부, 2012), 25-29세 남녀의 77.5%, 30-34세 남녀의 39.8%가 미혼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1). 결혼연령의 지연으로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미혼남녀는 이성교제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미혼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성 간의 기대되는 역할을 학습하여 궁극적으로 결혼 역할을 사회화 하면서 신체적, 정서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조인형, 2007; Braithwaite, Delevi, & Fincham, 2010). 하지만 이성교제는 개인이 아닌 두 명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이므로 의견의 불일치 시 갈등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갈등상황에 있어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보다 안전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성교제 안에서의 성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유의숙과 박경, 2004).

미혼남녀 1,66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0대 15.4%, 20대 19.6%, 30대 36.4%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경험이 증가하였고(이선희 등, 2000), 미혼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4%가 혼전 성경험이 있었다(이임순, 박은희와 이정재, 2006). 최근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85.4%, 여성의 56.1%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황신우, 2009), 미혼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결혼 전 성관계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이들의 혼전 성관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성행동은 어떠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전윤경, 2005),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욱 개방적이다(박

지현, 2004; 조승희, 2011).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개방적이고 이러한 태도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를 야기하는데(Hendrick & Hendriack, 1987), 선행연구에서 혼전순결에 대한 의지가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손애리와 천성수, 2005; 이선희 등, 2000). 최근 혼전 성관계가 증가되면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실제 성행동도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성교제에서 개인적 요인인 성태도와 관계적 요인인 성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성태도를 조율해나가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경은, 2006; 전윤경, 2005; 황신우, 2009).

혼전 성관계는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2012년 성병의 연령별 통계에서 20세에서 34세의 남녀가 전체 성병감염자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질병관리본부, 2013), 전국 임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에서도 미혼여성의 비율이 43% 수준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2011). 그러므로 안전한 성행동의 실천을 위해서는 미혼남녀가 성관계 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자율성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등 성관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자신이 성적 존재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송혜성, 2006; 장순복, 2002). 특히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성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성적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선미, 2009; 이지연과 이은설, 2005; 장순복, 유명숙과 이선경, 2001).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경우 성적 자율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많이 수용할수록 이성교제 시 성적 자율성이 낮다고 하였는데(이은숙과 강희순, 2010; 황인명, 2009), 우리나라 유교문화 속에서 자라온 미혼남녀들이 성행동에 있어서 여성에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와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해왔던 과거와 달리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행위인 성적 자율성을 통해 성건강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남성 또는 여성을 분리하여 조사하거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또한 기존의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성관계 경험의 유무에 상관없이 성관계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측정하고 성관계 유무에 따라 성적 자율성 점수를 비교하였다(김경원, 강경화와 정금희, 2012; 박선미, 2009; 송혜성, 2006; 장순복, 유명숙과 이선경, 2001; 최명현, 2004).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커플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적인 성관계 상황에서의 성적 자율성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였다.

최근 결혼연령이 지연되는 사회적 현상과 함께 미혼남녀가 혼전 성관계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험이 증가하므로, 본 연구는 현재 이성교제를 통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양상을 살펴보고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안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이성교제 중이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미혼남녀의 안전한 성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양상을 파악하고 차이를 비교한다.
- 2)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성행동

성행동은 미혼커플의 이성교제, 이성교제를 통한 성관계와 관련된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성교제, 성관계 경험에서부터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과의 이성교제, 성관계 경험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관계 연령, 첫 성관계 상황,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현재까지 이성교제 상대자 수, 성관계 상대자 수, 성병경험, 임신경험(본인 또는 여자 친구), 현재 이성교제에서 교제 기간, 이성교제 상대자와의 연령 차이, 성관계 빈도, 피임 빈도, 선호하는 피임 방법, 사용하는 피임 방법,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까지 기간 등이 포함된다.

2) 성태도

성태도는 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자기 태도나 관점이다(전윤경, 2005). 성의 개념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측면을 의미하는데(Hendrick & Hendrick, 1987), 이는 성적 개방성, 성관계 책임, 성관계를 통한 이성간의 친밀감, 성관계 목적에 대한 측면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는 주로 성관계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나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Hendrick과 Hendrick(1987)이 성인기 초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Hendrick, Hendrick과 Reich(2006)가 재구성한 도구로, 전윤경(2005)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한 Hendrick과 Hendrick(1987)의 도구를 Hendrick, Hendrick과 Reich (2006)가 재구성한 문항으로 연구자가 수정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성이라는 본성과 자율이라는 이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며, 에너지 행위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판단, 감정적 인식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자신이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다(장순복, 2002). 본 연구에서는 커플 내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성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장순복(2002)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미혼남녀의 성행동

이성교제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이성에 대한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남녀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사귀는 것을 의미한다(안경애, 2003). 즉, 둘 중 한 명으로 설명되기보다 상호적으로 인정되고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호작용이다. 이는 고유의 강도를 지니고, 애정의 표현들(신체적인 것을 포함하고, 현재는 아니더라도 성적인 관계를 기대하는)로 나타난다(Brown, Furman, & Feiring, 1999; Reis & Shaver, 1988; Collins, 2003에서 재인용). 이선희 등(2000)의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성경험은 20대 19.6%, 30대 36.4%로 보고되었으며, 이임순 등(2006)의 연구에서는 미혼여성 34%가 혼전 성경험이 있었으며, 이중 20-25세가 80%를 차지하였고, 직장인의 58%, 대학생의 26%가 성관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장인의 절반이상이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당시 직장인의 40%는 현재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었고, 한 달 평균 성관계 횟수는 3.3회였다. 황신우(2009)의 연구에서는 미혼남성의 85.4%와 미혼여성의 56.1%에서 성경험이 있다고 보고된다. 이처럼 혼인 연령의 지연과 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따라 혼전 성경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커플이 보다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성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 수립 차원에서 성적인 측면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다(전윤경, 2005). 이성교제 중의 남녀는 사소한 습관의 차이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 가치관의 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경애, 2003). 특히 성관계를 가지는 것 자체가 원치 않는 성관계 상황이나 임신, 성병 등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은 커플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미혼커플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관련 요인들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성관계 연령은 성인의 성 건강이나 성 생활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되고 있다(Jonson & Wadsworth, 1994; Bozon, 1996; Bozon & Kontula, 1996; 손애리와 천성수, 2005에서 재인용). 첫 성관계는 사회적·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 다양한 문헌에 근거하여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첫 성관계 연령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다(Hawes, Wellings, & Stephenson, 2010). 성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부터 형성되었던 성의 의미에 변화를 겪게 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의식하는 과정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첫 성관계 경험은 향후 미혼남녀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박수선, 2009).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교제 경험도 많고 성관계 경험도 많다. 성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며, 이에 따라 남성이 여성보다 성관계 경험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희와 김경신, 2008; 박지현, 2004; 신경림, 2011). 이성교제 경험이 많을수록 성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김진희와 김경신, 2008), 교제 경험이 많다는 것은 곧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제 상대자 수가 많을수록 성적 자기주장 점수가 떨어진다고 하였고(최명현, 2004), Auslander, Perfect, Succop과 Rosenthal(2007)의 연구에서도 교제 상대자의 수가 성행동의 시작, 거절, 임신과 성병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들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이다.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성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젊은 연령층의 클라미디아 양성률이 높고(질병관리본부, 2012), 전국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연구에서도 43%가 미혼 여성이었다(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2011). 그러므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성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

실제 미혼남녀들의 피임 방법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임순 등

(2006)은 성관계 시 36%가 반드시 피임을 한다고 하였으며, 피임 방법은 콘돔 89%, 질외사정이 68%, 생리주기법이 48%를 차지하였다. 여성의 대부분이(92%) 임신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피임 실천율이 낮고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등 피임에 대해 이중성을 가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서는 남성의 60.2%, 여성의 56.7%가 규칙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피임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질외사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피임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황신우, 2009). 피임실천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데, 남성의 경우 콘돔사용 의도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과거 콘돔사용 경험이 가장 중요한 예측결과로 검증되었으며(정유미, 2003),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피임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성적 자율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순복, 2002).

이 외에도 성적 자율성과 관련있는 성행동 변수로, 교제 시 남성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으로 하여금 안전하지 못한 성행동을 할 위험이 높고(Diclemente et al., 2002), 교제 기간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응낙하는데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외숙과 박경, 2004). 또한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쉽게 응낙하며(유외숙과 박경, 2004; 이선경, 2001; 장순복, 유명숙과 이선경, 2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적 자율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황인명, 2009).

이상의 문헌고찰 결과를 살펴볼 때, 현재의 성행동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경험은 그들의 성태도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성행동의 결과로써 성태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성관계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관계 상황에서 얼마나 성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혼커플이 가지고 있는 성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성교제 중인 남녀커플을 대상으로 첫 성관계 경험에서부터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특성을 조사하고, 이성교제와 관련된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실제 커

플이 직면하고 있는 성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성행동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미혼남녀의 성태도

일반적으로 태도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입력되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관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 중 성적인 측면과 관련된 자기의 태도나 관점을 성태도라고 한다(호선민, 2009). 성태도는 한 순간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직사회인 가정환경 및 사회문화의 시대적 배경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성태도를 만들어간다(최인숙, 2009). 김연주(2006)는 성태도를 성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치관 등 성에 대한 개인의 내적 신념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성태도는 사회화의 결과이며, 성활동에 대해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개인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성태도는 자신의 성적인 면에 대한 인지적 관점으로, 여타의 태도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현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관련된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전윤경, 2005).

여성의 성태도는 남성의 성태도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Hendrick & Hendrick, 1987). 남녀의 성태도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에서 거의 모든 대상자에서 남성은 좀 더 수용적이고 개방적으로, 여성은 좀더 보수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Hendrick, Hendrick, Slapion-Foote, & Foote, 1985). 한국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사상에 의해 성 규범의 이중성이 존재하여 한국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성문화가 규정하는 여성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보편적인 성 규범을 추구하여 왔다(김계숙, 1999). 결혼 전의 남녀관계에서 성적 실천이 일반화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미혼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지식과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김현경, 2003).

혼전순결의지는 남성의 경우 40%, 여성의 경우 72.6%로 남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선희 등, 2000), 이 후 연구에서도 혼전순결의지는 남성이 15%, 여성이 39.7%로 혼전 성경험에 대해 허용적으로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역시 남성과 여성은 2배 정도 의견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손애리와 천성수, 2005). 이는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의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유교 문화적 성향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사료되며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개방된 성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성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남녀의 의견 차이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성적인 상황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또한 혼전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서 남학생은 충동, 쾌락 등 성적 충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여학생의 경우 사랑해서, 거절을 못해서, 좋아하므로 등 수동적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최명숙과 하나선, 2004), 우리나라 대학생의 이성교제에서 약 20%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애무를 응낙하게 되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된다(김향숙, 2001; 한경순과 함미영, 2000).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여성의 성태도와 성행동도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미혼남녀의 혼전 성경험 비율이 높아지고, 성경험 양상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신우, 2009). 성태도는 실제 성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욱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지현, 2004; 조승희, 2011). 성태도는 자신의 과거 성경험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이렇게 성립된 성태도 역시 앞으로의 성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되새겨 보면 성행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태도가 개방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전윤경, 2005).

성태도의 차이는 성행동의 차이로 이어져, 미혼커플의 성적인 상황에서 의견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미혼남녀가 가지고 있는 성태도의 차이는 커플 내 성행동에 영향을 주고, 둘 사이의 관계적 역동 속에서 성적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이성교제 내에서 개인적 요인인 성태도와 관계적 요인인 성행동이 불일치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개인적, 관계적 측면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경은, 2006).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커플 내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경우 성적 자율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을 많이 수용할수록 데이트 상황에서 성적 자율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이은숙과 강희순, 2010; 황인명, 2009).

만족스러운 이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한 성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지속하고 있는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상대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태도를 조율함으로써 좀 더 조화로운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전윤경, 2005). 낮은 성적 의사결정능력과 불명확한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평등하게 성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순결보다는 성에 대한 주인의식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에 대한 자기 행동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김연주, 2006).

기존의 연구들은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교제중인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함께 조사했기 때문에, 이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태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문헌고찰 결과에 따라 관계 역동 속에서 형성되는 성행동과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성적 자율성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 미혼남녀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성적자기주장은 인간의 자율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모든 성적인 경험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Patricia et al., 1997). 성적 자율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성폭력을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감정의 균형, 자신의 이득, 자신의 자부심, 사회적으로 떳떳함 등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신상숙, 2001). 장순복(2002)은 성적 자율성이란 성이라는 본성과 자율이라는 이성이 통합된 개념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이며 에너지 행위 능력을 포함한 인지적 판단, 감정적 인식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자신이 외부적 조건이나 내부적 조건들에 자신의 방식대로 대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김연주(2006)는 성적 의사결정능력을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지배당하거나 상대방을 지배하지 않으며, 평등하고 주체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성관계는 개인이 아닌 두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자기주장 정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자기주장능력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행동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obinson & Calhoun, 1984). 성적 자율성의 개념은 여성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많은 여성들이 성적 결정을 하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무력한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규범과 성적 규범이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Kaler, 2004; Worth, 1989). 또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

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Jones, 2006),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와 같다(이선경, 2001). 스페인의 18-87세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성이 주로 성관계를 시작하는데 자기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이 성적인 상황을 피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고 하였다(Santos-Iglesias, Sierra, & Vallejo-Meina, 2012). 하지만 커플 내 친밀도와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행동을 변화하도록 노력하므로(Burke & Young, 2012), 성관계는 개인이 아닌 두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경험 양상에 있어서도 남녀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남성이 성에 대한 결정권이 강하고 주도적이라는 일반적 이해와 달리 여성도 성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황신우, 2009). 또한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이성교제 상대자와 관계 형성 시 수동적 혹은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피임과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효율적인 피임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였다(최정현, 김경은과 신미아, 2010). 이는 전통사회에서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해 여성에게는 성의 자율성이 부여되지 못한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의 성에 대한 시각이 좀 더 관대해짐에 따라, 여성들의 성적 자율성이 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수준에서 성적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였다(김경원, 강경화와 정금희, 2012). 또한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고(황인명, 2009),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수용이 교제 상황에서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킨다고 하였다(이은숙과 강희순, 2010; 이지연과 이은설, 2005). 하지만 장순복과 이미경(2003)의 연구에

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 보수적인 성태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실제 성관계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경험이 없는 대상자는 그들의 의지수준에서 응답하게 되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그들의 행위수준에 근거해 응답하게 되는 제한점이 있다. 그 결과 성관계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자율성이 낮아진다는 연구와(박선미, 2009; 최명현, 2004),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김경원, 김경화와 정금희, 2012; 송혜성, 2006)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적인 성관계 상황에서 성적 자율성을 측정함으로써 커플 내 성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상호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한 성관계를 실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관계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로서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행동인 만큼, 성적 자율성이 낮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문제들로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성병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조건에서도 자기 스스로의 방식대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적 능력인 성적 자율성이 필요하다(이혜경, 2005; 장순복, 2002). 하지만 성관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성적 자율성이 저하된 경우 성관계를 본인의 의지에 따르지 않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갖게 되어 성행동에 대해 주체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박선미, 2009). 이에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현재 성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성태도를 조사하여, 커플 내 성태도의 차이가 실제 성행동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적 자율성은 임신예방 경험이나 성병예방 경험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장순복과 이미경, 2003), 커플 내 성관계 시 피임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련있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책임있고 안전한 성관계를 통해 원치 않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경원, 강경화와 정금희, 2012).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잠재적·실제적인 성적 활동 집단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파악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성경험은 개인이 아닌 커플의 상호작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여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Ⅲ. 개념적 기틀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미혼커플의 교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행동은 커플 내 개인특성(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관계 연령, 첫 성관계 상황,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현재까지 이성교제 상대자 수, 성관계 상대자 수, 성병경험, 본인 또는 여자친구의 임신경험)과 공통특성(현재 이성교제 상대자와의 교제 기간, 연령 차이, 성관계 빈도, 피임 빈도, 선호하는 피임 방법, 사용하는 피임 방법,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행동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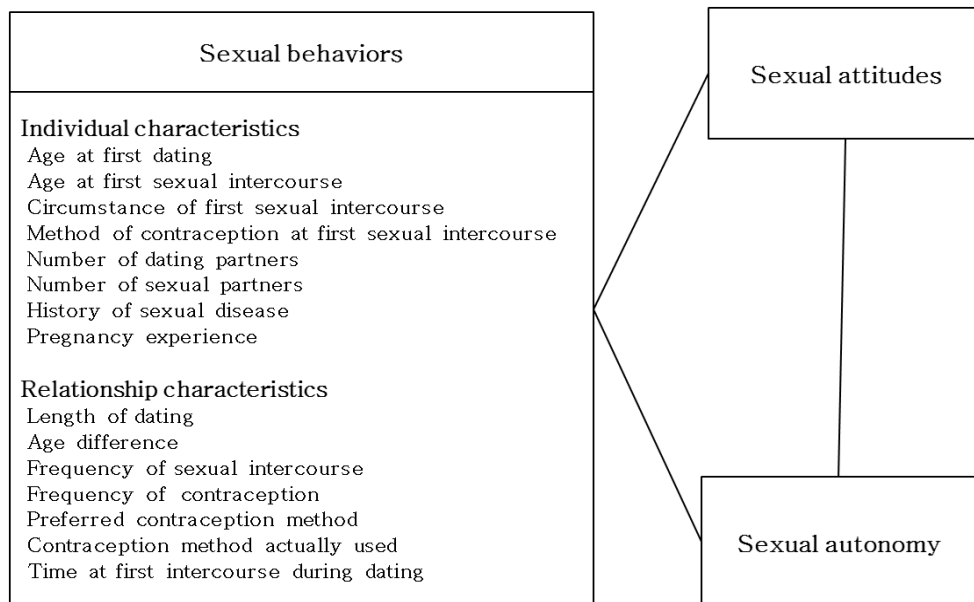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IV.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한국의 미혼남녀이고, 근접모집단은 지역사회 20-34세의 미혼남녀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으로 제한한다.

- 1) 현재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 커플 중 20-34세
- 2) 현재 이성교제를 통해 성관계 경험이 있는 미혼남녀 커플
- 3) 연구 참여에 동의한 미혼남녀 커플

본 연구에서 표적모집단은 20-34세 사이의 미혼남녀로,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미혼남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4%정도이다(통계청, 2011).

표본의 추출은 비확률표출법 중 편의표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검정력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검정력 분석 방법 중, 한 표본의 비율을 이미 알고 있는 한 모집단의 비율과 비교하여 필요한 표본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이은옥 등, 2009).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n=(Z_{1-\alpha})^2pq/L^2$ 여기서 α 는 유의수준, p 는 모집단의 비율, q 는 $1-p$, L 은 비율의 허용오차를 의미한다. 유의수준을 95%, 비율의 허용오차를 5%로 두었을 때 위의 식에 대입하여 표본 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1.96)^2(0.14)(0.86)/(0.05)^2=185.01$ 이므로 최소 186명의 표본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표본 수는 200명(100커플)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 주거형태 등 총 6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성행동

성행동은 커플의 이성교제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특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에서부터 현재 만나고 있는 이성과의 성관계와 관련된 특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관계 연령, 첫 성관계 상황,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현재까지 이성교제 상대자 수, 성관계 상대자 수, 성병경험, 임신경험(본인 또는 상대방), 현재 이성교제에서 교제 기간, 이성교제 상대자와의 연령 차이, 성관계 빈도, 피임 빈도, 선호하는 피임 방법, 사용하는 피임 방법,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 등 총 15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3) 성태도

성태도 측정도구는 Hendrick과 Hendrick(1987)이 성인기 초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43문항의 Sexual attitudes Scale(SAS)을 Hendrick, Hendrick과 Reich(2006)가 23문항으로 재구성한 Brief Sexual Attitudes Scale(BSAS)로 전윤경(2005)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한 도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Hendrick, Hendrick과 Reich(2006)의 Brief

Sexual Attitudes Scale(BSAS)는 성허용성(Permissiveness), 성적 경험(Sexual Practices), 교감(Communion), 수단(Instrumentality)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Cronbach's alpha = .73-.95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7-.92였다. 전윤경(2005)이 변안한 43문항의 도구를 개정된 Brief Sexual Attitudes Scale의 23문항으로 수정하여,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범위는 23-1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6으로 나타났다.

4) 성적 자율성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는 장순복(2002)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 하였다. 기존 도구의 문항 중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실제 커플들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조사이므로 '성폭력'이라는 단어대신 도구 개발 당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는 조절과 대응의 하위개념을 가지며 총 13문항으로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3-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2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3년 3월 5일에서 2013년 4월 7일까지 지역사회의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커플 내 성관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포함하므로 연구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서울, 경기, 대구, 울산, 부산 등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편의 표출된 대상자에게 web survey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커플에게 설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여하도록 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커플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전달 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직, 대기업, 중소기업, 서비스 업종,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참여안내문을 메신저로 보내 주위 커플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 수집 시행 전 대상자에게 pilot study를 시행하여 서면으로 된 설문지 형식과 web survey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개인의 성과 관련된 기록이므로, 테이프를 부착한 불투명 봉투를 제공하여 응답 후 바로 동봉하여 수거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전달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web survey형식은 스마트폰을 통해 web site에 접속 가능하였기 때문에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고, 응답내용은 바로 web site에 저장되어 개인의 비밀유지 측면에서도 대상자가 선호하여 web survey형식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게 되었다. pilot study에서 프로그램 상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시 연구자가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교제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내용을 설명 후 스마트폰으로 web site 주소를 알려주고 대상자가 가능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web site에 접속 시 연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의하는 경우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커플을 식별하기 위해 커플 중 먼저 참여하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4자리 숫자의 커플번호를 부여하였다. 여성이 먼저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이 제공되며, 남성이 먼저 설문에 참여하는 경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문항이 제공되었다. 설문을 완료한 경우 본인이 응답한 내용은 web site에 code화 되어 저장되며 응답한 내용의 유출을 막기 위해 다시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하였다. 상대방은 동일한 커플번호로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하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4자리의 커플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편의를 위해 커플번호를 포함하여 바로 상대방 version으로 접속 가능한 site 주소를 복사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달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대방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커플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하고 개인적인 성과 관련된 문항으로 커플 내 비밀이 유지되어야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플 내 기밀유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의하였고, 성별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응답을 확인할 수 없고, 결과는 연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커플 내 기밀성을 유지하였다.

설문 응답 소요시간은 평균 5분-10분 사이로, 총 498명이 web site에서 설문을 시작하였으나 끝까지 완료한 경우는 329명이었다. 응답 도중 설문을 중단한 경우, 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경험 연령, 피임, 과거 이성교제 상대자 수, 성관계 상대자 수 등의 개인의 성경험과 관련된 문항들을 포함하는 page에서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항에 대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설문을 완료한 329명 중 119명(남 44명, 여 75명)은 상대방이 설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설문을 중단하였으며, 커플모두가 응답한 경우는 208명(104커플)이었다. 이 중 성관계가 없는 커플과 응답내용 중 실제 커플이 의심되는 4커플을 제외한 200명(100커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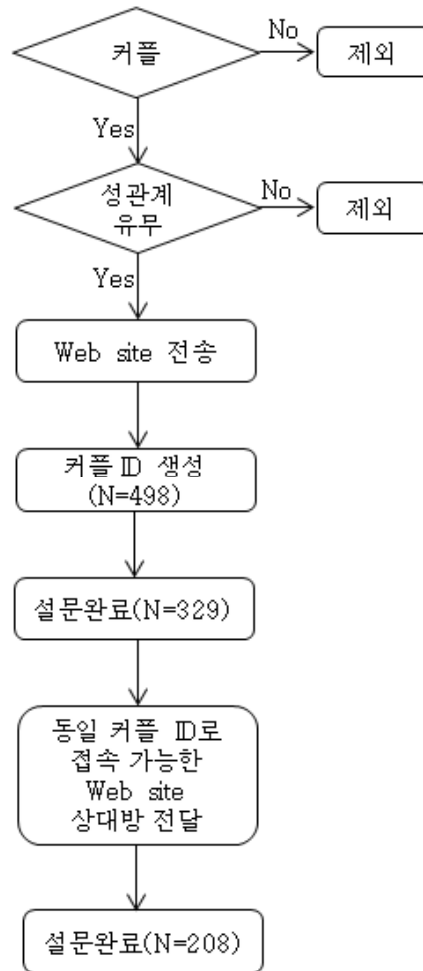


Figure 2. Data collection procedure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미혼커플의 일반적 특성,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미혼커플의 성행동의 차이를 chi-square test, t-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3) 미혼커플의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4)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로 검증하였다.
- 5) 미혼커플의 피임 결정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 6)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따른 피임 결정의 차이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V. 연구 결과

1. 미혼커플의 일반적 특성 및 교제 특성

1) 미혼커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0커플(200명)로 남녀 각각 100명이다. 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 51명(25.5%), 25-29세 128명(64.0%), 30-34세 21명(10.5%)이었다. 남성의 경우 25-29세 67명(67.0%), 30-34세 21명(21.0%), 20-24세 17명(17.0%)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5-29세 61명(61.0%), 20-24세 35명(35.0%), 30-34세 4명(4.0%)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12명(6.0%), 전문대학 29명(14.5%), 대학 146명(73.0%), 대학원 13명(6.5%)으로 대학 이상이 가장 많았다. 직업은 직장인이 142명(71.0%)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44명(22.0%), 무직 14명(7.0%)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68명(34.0%), 종교가 없는 경우는 132명(66.0%)이었다. 주거상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105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 자취하는 경우는 63명(31.5%), 친구 또는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2명(16.0%)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Male (n=100)	Female (n=100)	Total (n=200)
		n(%)	n(%)	n(%)
Age(Year)	20-24	16(16.0)	35(35.0)	51(25.5)
	25-29	67(67.0)	61(61.0)	128(64.0)
	30-34	17(17.0)	4(4.0)	21(10.5)
	Mean±SD	26.9±2.85	25.0±2.55	25.9±2.8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5(5.0)	7(7.0)	12(6.0)
	College	16(16.0)	13(13.0)	29(14.5)
	University	73(73.0)	73(73.0)	146(73.0)
	Graduate school	6(6.0)	7(7.0)	13(6.5)
Occupation	Office worker	70(70.0)	72(72.0)	142(71.0)
	Student	24(24.0)	20(20.0)	44(22.0)
	Unemployed	6(6.0)	8(8.0)	14(7.0)
Religion	Have	30(30.0)	38(38.0)	68(34.0)
	None	70(70.0)	62(62.0)	132(66.0)
Cohabitant	Parents	54(54.0)	51(51.0)	105(52.5)
	Alone	33(33.0)	30(30.0)	63(31.5)
	Siblings/Friends	13(13.0)	19(19.0)	32(16.0)

2) 미혼커플의 교제 특성

미혼커플의 교제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이성교제에서 교제 기간은 1-12개월이 41커플(41.0%), 13-24개월이 28커플(28.0%), 25-36개월이 11커플(11.0%), 37개월 이상이 20커플(20.0%)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에서 남성이 연상인 경우가 66커플(66.0%)로 가장 많았고, 동갑인 경우가 22커플(22.0%), 여성이 연상인 경우가 12커플(12.0%)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교제에서 첫 만남 후 성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은 30일 이내가 41커플(41.0%), 30-100일 미만이 31커플(31.0%), 100일에서 1년 미만이 21커플(21.0%), 1년 이상이 7커플(7.0%)이었다(Table 2).

Table 2.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the couples (N=100couples)

Variables	Categories	n(%)
Length of dating(month)	1-12	41(41.0)
	13-24	28(28.0)
	25-36	11(11.0)
	Longer than 37	20(20.0)
Age difference	Male order than female	66(66.0)
	Same age	22(22.0)
	Female order than male	12(12.0)
Time at first intercourse during dating	Within 30days	41(41.0)
	30-100 days	31(31.0)
	100 days-1 year	21(21.0)
	1 year or after	7(7.0)

2. 미혼커플의 성행동

대상자의 성행동으로 첫 이성교제 연령은 남성의 경우 10-32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8.4세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도 11-27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8.1세로 나타났다. 첫 성경험 연령은 남성의 경우 15-32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21.2세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13-27세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20.7세로 나타났다. 미혼커플의 첫 이성교제 연령과 첫 성관계 연령은 통계적으로 남녀 차이가 없었다.

처음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남성의 89명(89.0%), 여성의 67명(67.0%)이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11명(11%), 여성의 33명(33%)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성관계를 경험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경우였다. 처음 성경험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에서 남녀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첫 성경험 시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콘돔(남성 55.0%, 여성 54.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외사정법(남성 16.0%, 여성 22.0%)이 많았다.

이성교제 상대자의 수는 남성의 경우 1-30명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4.5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25명의 분포로 평균 4.9명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상대자의 수는 남성의 경우 1-30명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3.9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1-16명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3.4명으로 나타났다. 미혼커플 남녀간 이성교제 상대자 수와, 성관계 상대자 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현재까지 성병경험에 대해서는 남성의 5명(5.0%), 여성의 9명(9.0%)이 성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이 임신을 경험한 경우가 남성의 12명(12.0%),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4명(4.0%)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빈도는 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남성 53명(53.0%), 여성 50명(50.0%), 월 1-2회가 남성 39명(39.0%), 여성 40명(40.0%)이었으며, 2-3개월에 1회, 1년에 몇 번, 단 1회 등 보다 낮은 빈도로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한 경우 남성의 8명(8%), 여성의 10명(10%)이었다.

성관계 시 피임 정도는 거의 항상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 65명(65.0%), 여성 66명(66.0%), 가끔 한다고 한 경우가 남성 23명(23.0%), 여성 22명(22.0%), 피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성 12명(12.0%), 여성 12명(12.0%)이었다.

선호하는 피임 방법은 콘돔(남성 63.0%, 여성62.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질외사정법(남성25.0%, 여성20.0%)이 많았다. 선호하는 피임 방법은 48커플이 일치하였고, 52커플은 불일치하였다. 현재 이성교제에서 성관계 시 사용하는 피임 방법에 대해서는 커플 내 인식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69커플은 현재 사용하는 피임 방법이 일치하였고, 31커플은 일치하지 않았다. 콘돔 (남성 65.0%, 여성54.0%)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질외사정법(남성22.0%, 여성34.0%)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약 10%가 질외사정법을 선호하지 않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피임 방법과 실제 피임 방법이 다른 경우 그 이유로 남성은 상대방의 요구, 상대방의 의견 존중, 임신예방 등이었으며, 콘돔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미숙, 성감차이 등으로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귀찮음, 관계 시 성감의 차이, 남자친구의 거부, 콘돔이 준비 되지 않음, 임신걱정,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건강염려 등으로 응답하였다.

개인수준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과 사용 피임 방법의 일치도는 남성의 75명(75.0%), 여성의 73명(73.0%)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 피임 방법이 일치하는 68커플을 대상으로 피임 방법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분석한 결과, 남성의 52명(76.5%), 여성의 57명(83.8%)이 본인이 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방법의 실천과 결정은 통계적으로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exual behaviors

Variables	Categories	Male(n=100)		Female(n=100)		F or $\chi^2(p)$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Age at first dating	Mean \pm SD	18.4 \pm 3.58	18.1 \pm 3.2			0.78(.442)
	Range	10-32	11-27			
Age at first sexual intercourse	Mean \pm SD	21.2 \pm 3.3	20.7 \pm 2.6			1.15(.252)
	Range	15-32	13-27			
Circumstance of first sexual intercourse	Under agreed	89(89.0)	67(67.0)			14.10(<.001)
	Under disagreed	11(11.0)	33(33.0)			
Method of contraception at first sexual intercourse	Condom	55(55.0)	54(54.0)			2.85(.673)
	Coitus interrupt	16(16.0)	22(22.0)			
	Oral pill	1(1.0)	1(1.0)			
	Menstrual cycle	0(0.0)	1(1.0)			
	None	28(28.0)	22(22.0)			
Number of dating partners	Mean \pm SD	4.5 \pm 3.7	4.9 \pm 3.7			-0.93(.352)
	Range	1-30	1-25			
Number of sexual partners	Mean \pm SD	3.9 \pm 4.8	3.4 \pm 3.2			0.81(.419)
	Range	1-30	1-16			
History of sexual disease	None	95(95.0)	91(91.0)			1.23(.407)
	Have	5(5.0)	9(9.0)			
Pregnancy experience	None	88(88.0)	96(96.0)			4.35(.037)
	Have	12(12.0)	4(4.0)			

Variables	Categories	Male(n=100)		Female(n=100)		F or $\chi^2(p)$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Frequency of sexual intercourse	Over once a week	53(53.0)	50(50.0)			
	1-2 times a month	39(39.0)	40(40.0)			0.35(.871)
	Less than above	8(8.0)	10(10.0)			
Frequency of contraception	Always	65(65.0)	66(66.0)			
	Sometimes	23(23.0)	22(22.0)			0.06(1.000)
	Never	12(12.0)	12(12.0)			
Preferred contraception method	Condom	63(63.0)	62(62.0)			
	Coitus interrupt	25(25.0)	20(20.0)			
	Oral pill/Implanon	3(3.0)	7(7.0)			4.34(.363)
	Menstrual cycle	2(2.0)	6(6.0)			
	None	7(7.0)	5(5.0)			
Whether preferred contraception method between couples matches(100couples)	Response matched		48(48.0)			
	Response unmatched		52(52.0)			
Contraception method actually used	Condom	66(66.0)	54(54.0)			
	Coitus interrupt	22(22.0)	34(34.0)			
	Oral pill/Implanon	4(4.0)	4(4.0)			3.94(.409)
	Menstrual cycle	4(4.0)	4(4.0)			
	None	4(4.0)	4(4.0)			
Whether actual contraception method between couples matches(100couples)	Response matched		69(69.0)			
	Response unmatched		31(31.0)			

Variables	Categories	Male(n=100)		Female(n=100)		F or $\chi^2(p)$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n(%) or Mean \pm SD	
Correspondence between preferred contraception method and actually used	Same	75(75.0)	73(73.0)			0.10(.747)
	Different	25(25.0)	27(27.0)			
Decision maker for contraception (68 couples)	Myself	52(76.5)	57(83.8)			1.16(.195)
	Partner	16(23.5)	11(16.2)			

3. 미혼커플의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

미혼커플의 성태도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살펴보면, 총점 범위 23-115점 중 남성의 경우 65.57점이었고, 여성의 경우 59.82점으로 남성의 성태도가 여성의 성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자율성에 대한 총점과 평균을 살펴보면 총점 13-65점 중에서 남성의 경우 50.89점, 여성의 경우 52.67점으로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 내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paired t-test를 수행한 결과, 커플 내 성태도($t=3.89, p<.001$)와 성적 자율성($t=-2.07, p=.04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Differences of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between males and females (N=100couples)

Variables	Mean±SD		t(p)
	Male(n=100)	Female(n=100)	
Sexual attitudes	65.57±12.08	59.82±12.32	3.89(<.001)
Range	23-115	38-98	
Sexual autonomy	50.89±6.85	52.67±6.03	-2.07(.041)
Range	13-65	37-65	

4.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

미혼커플의 성행동 특성 중 성병경험(0: 성병경험 없음, 1: 성병경험 있음)과 임신경험(0: 임신경험 없음, 1: 임신경험 있음)은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였다.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실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피임의 안전성에 따라 재코딩하였다(1: 피임 안함, 2: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 3: 콘돔, 피임약, 임플라논). 피임실패율은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85%, 질외사정법 27%, 생리주기법 25%, 콘돔 15%, 피임약 8%, 임플라논 0.05%로 (Hacher et al, 2007), 재코딩 값이 증가할수록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관계 빈도(1: 1회 2: 1년에 몇 번, 3: 2-3개월에 1번, 4: 월 1-2회, 5: 주 1회 이상)와 피임 빈도(1: 피임 안함, 2: 가끔 3: 거의 항상)는 값이 증가 할수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서열화하여 재코딩하였다.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은 (1: 30일 이내, 2: 30-100일 3: 100일-1년 4: 1년 이상)으로 값이 증가할수록 소요된 기간이 긴 것으로 서열화하여 재코딩하였다.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

남성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남성의 현재 성행동이 과거 성 관련 경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성행동 변수들을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남성의 성행동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 성관계 연령은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r=.22, p<.05$), 성관계 상대자 수($r=-.41,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관계 상대자 수는 여자친구의 임신경험($r=.21,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임 빈도는 첫 성관계 연령($r=.22, p<.05$), 성관계 상대자 수($r=-.22,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용 피임 방법은 성관계 상대자수($r=-.24, p<.05$), 여자친구의 임신경험($r=-.22, p<.05$), 피임 빈도($r=.49,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은 성관계 빈도($r=-.45,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태도는 첫 성관계 연령($r=-.28,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성적 자율성은 피임 빈도($r=.23, p<.05$)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 현재 교제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피임 빈도와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데 관련있는 성행동 변수로 첫 성관계 연령이 늦고 성관계 상대자 수가 적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았으며, 성관계 상대자 수, 여자친구의 임신경험, 성관계 빈도가 적을수록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피임 빈도가 높을수록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첫 성관계 연령이 빠른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males (N=100)

	1	2	3	4	5	6	7	8	9	10
2	.22*									
3	-.41**	-.12								
4	.09	.03	.01							
5	-.16	-.16	.21*	.06						
6	-.08	-.11	.16	-.00	.08					
7	.22*	.14	-.22*	.02	-.15	-.01				
8	.10	.14	-.24*	-.03	-.22*	-.19	.49**			
9	.13	-.08	-.14	-.03	-.11	-.45**	.02	.13		
10	-.28**	-.13	.17	.18	.12	.05	-.09	-.17	-.17	
11	-.01	-.05	-.16	.17	-.09	-.06	.23*	.14	.06	.05

* p< .05 ** p<.01

1=첫 성관계연령

2=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3=성관계 상대자 수

4=성병경험

5=임신경험

6=성관계 빈도

7=피임 빈도

8=사용 피임 방법

9=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

10=성태도

11=성적 자율성

2) 여성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

여성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여성의 현재 성행동이 과거 성 관련 경험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성행동 변수들을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성행동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 성관계 연령은 성관계 상대자 수($r=-.49, p<.01$)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은 임신경험($r=-.21, p<.05$), 성관계 빈도($r=-.22, p<.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관계 상대자 수는 사용 피임 방법($r=.25,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임 빈도는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r=.30, p<.01$)과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용 피임 방법은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r=.28, p<.01$), 피임 빈도($r=.55,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은 첫 성관계 연령($r=.37, p<.01$), 성관계 상대자 수($r=-.41, p<.01$), 성관계 빈도($r=-.38,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태도는 첫 성관계 연령($r=-.30, p<.01$), 성관계 상대자 수($r=.37, p<.01$), 성관계 빈도($r=.22, p<.05$),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r=-.25, p<.0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적 자율성은 피임 빈도($r=.31, p<.01$), 사용 피임 방법($r=.28,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현재 교제에서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피임 빈도와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데 관련있는 성행동 변수로 첫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현재 교제에서 피임 빈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었으며, 첫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성관계 상대자 수가 적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을수록 현재 교제에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가 개방적인 여성은 첫 성관계 연령이 어리고, 성관계 상대자 수가 많았으며, 성관계 빈도가 높고,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 성행동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females (N=100)

	1	2	3	4	5	6	7	8	9	10
2		-.01								
3		-.49**								
4		-.17	-.04	.03						
5		-.08	-.21*	-.01	-.06					
6		-.17	-.22*	.25*	.08	.10				
7		.16	.30**	-.10	.06	-.16	-.14			
8		.10	.28**	-.19	.13	-.19	-.10	.55**		
9		.37**	.03	-.41**	.06	-.04	-.38**	.17	.17	
10		-.30**	-.03	.37**	.11	-.01	.22*	-.12	-.06	-.25*
11	.07	.16	-.04	-.09	-.01	-.15	.31**	.28**	.17	-.11

* p< .05 ** p<.01

1=첫 성관계연령

2=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

3=성관계 상대자 수

4=성병경험

5=임신경험

6=성관계 빈도

7=피임 빈도

8=사용 피임 방법

9=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

10=성태도

11=성적 자율성

3)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7). 현재 교제 내에서의 성행동 변수인 성관계 빈도, 피임 빈도, 사용 피임 방법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성태도는 남성의 성관계 빈도($r=.23, p<.05$)와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성의 피임 빈도와 여성의 사용 피임 방법($r=.46, p<.01$), 여성의 피임 빈도와 남성의 사용 피임 방법($r=.37, p<.01$)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성의 성적 자율성과 여성의 사용 피임 방법($r=.28, p<.05$), 여성의 성적 자율성과 남성의 사용 피임 방법($r=.33, p<.01$)은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남성의 성태도와 여성의 성태도($r=.27, p<.01$), 남성의 성적 자율성과 여성의 성적 자율성($r=.21, p<.05$)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이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이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상대방이 피임실천을 잘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은 커플 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가 개방적인 남녀가 커플인 경우가 많았고 성적 자율성이 높은 남녀가 커플인 경우가 많았다.

Table 7. Correlations among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and sexual autonomy of couples (N=100 couples)

Male \ Female	1	2	3	4	5
1	.71**	-.08	-.11	.06	.06
2	-.04	.44**	.37**	-.01	.13
3	-.14	.46**	.61**	-.15	.28*
4	.23*	-.00	-.01	.27**	.03
5	-.12	.13	.33**	-.02	.21*

* $p<.05$ ** $p<.01$

1=성관계 빈도 2=피임 빈도 3=사용 피임 방법 4=성태도 5=성적 자율성

5. 미혼커플의 성적 자율성 차이와 피임 결정

미혼커플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주요 성행동 변수인 피임 빈도와 사용 피임 방법은 성적 자율성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 빈도와 사용 피임 방법에 따른 성적 자율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피임 빈도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6.27, p<.01$), 콘돔, 피임약, 임플라논 등 안전성이 높은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성적 자율성이 5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질외사정이나 생리주기법을 사용하는 경우 50.86점,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 49.00점 순으로 나타났다($F=4.35, p<.05$)(Table 8).

여성의 성적 자율성은 피임 빈도와 사용 피임 방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의 안전한 피임 방법의 사용과 관련있는 것으로 상관관계 분석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피임 빈도와 사용 피임 방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Table 9).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낮은 군에서 거의 항상 피임을 하는 경우는 50%였으나 높은 군에서 여성의 피임 빈도는 증가 하여 83.9%가 거의 항상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0.70, p<.05$). 콘돔, 피임약, 임플라논 등 안전한 피임 방법의 사용은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낮은 군에서 여성 40%, 남성 50%였으나, 높은 군에서는 여성 77.4%, 남성 87.1%로 나타나($F=9.06, p<.05, F=8.95, p<.05$),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군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Differences of sexual autonomy by contraception decision of participants (N=200)

Variables	Categories	Sexual autonomy					
		Male(n=100)			Female(n=100)		
		n(%)	Mean±SD	F(p)	n(%)	Mean±SD	F(p)
Frequency of contraception	Always	65(65.0)	52.15±6.60		66(66.0)	53.70±5.89 ^b	
	Sometimes	23(23.0)	48.91±10.12	2.82 (.065)	22(22.0)	52.50±5.41 ^b	6.27 (.003)
	Never	12(12.0)	47.83±4.51		12(12.0)	47.33±5.40 ^a	
Method of contraception actually used	Condom/Oral pill/Implanon	70(70.0)	51.51±7.77		58(58.0)	54.10±5.82	
	Coitus interrupt/Menstrual cycle	26(26.0)	49.77±7.20	1.00 (.370)	38(38.0)	50.86±6.03	4.35 (.016)
	None	4(4.0)	47.25±1.26		4(4.0)	49.00±3.16	

^{a,b}Duncan의 사후검정으로 통계처리함(Frequency of contraception: a<b)

Table 9.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decision according to sexual autonomy of females (N=200)

Variables	Categories	n(%)			F(p)
		Group1	Group2	Group3	
Frequency of contraception (female)	Always	10(50.0)	30(61.2)	26(83.9)	
	Sometimes	4(20.0)	14(28.6)	4(12.9)	10.70(.025)
	Never	6(30.0)	5(10.2)	1(3.2)	
Method of contraception actually used (female)	Condom/Oral pill/Implanon	8(40.0)	26(53.1)	24(77.4)	
	Coitus interrupt/Menstrual cycle	10(50.0)	21(42.9)	7(22.6)	9.06(.035)
	None	2(10.0)	2(4.1)	0(0.0)	
Frequency of contraception (male)	Always	14(70.0)	30(61.2)	21(67.7)	
	Sometimes	2(10.0)	13(26.5)	8(25.8)	3.94(.422)
	Never	4(20.0)	6(12.2)	2(6.5)	
Method of contraception actually used (male)	Condom/Oral pill/Implanon	10(50.0)	33(67.3)	27(87.1)	
	Coitus interrupt/Menstrual cycle	8(40.0)	14(28.6)	4(12.9)	8.95(.036)
	None	2(10.0)	2(4.1)	0(0.0)	

Group1 : 여성의 성적 자율성 낮은 집단(정규분포곡선의 25% 이하)

Group2 : 여성의 성적 자율성 중간 집단(정규분포곡선의 26-75%)

Group3 : 여성의 성적 자율성 높은 집단(정규분포곡선의 76%이상)

VI. 논의

본 연구는 현재 교제 중인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양상을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향후 미혼남녀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 양상

성관계는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행위로서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행동이다(장순복, 2002). 하지만 성관계는 개인이 아닌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커플 수준에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 중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실제적인 성관계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피임이나 성적 자율성 등에 관한 연구들도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근거하지 못한 채 가상의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성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적·잠재적으로 가장 활발한 성활동 집단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20-34세 미혼남녀들 중 현재 교제 중인 커플 가운데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커플 사이의 성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미혼커플의 성행동은 첫 이성교제 연령, 첫 성관계 연령, 현재 까지 이성교제 상대자 수, 성관계 상대자 수에서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하며(손애리와 천성수, 2005), 남성의 성경험률이 높고 여성의 혼전 순결의 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이선희

등, 2000). 하지만 최근 연구결과 혼전 성관계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면서 미혼남녀 간의 혼전 성경험 비율차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조승희, 2011; 황신우, 2009),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성관계 경험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의 대상자들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가지는 남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관계 경험을 전제로 한 경우 미혼남녀의 성행동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미혼남녀의 성행동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미혼커플의 90%가 주 1회 이상 또는 한 달에 1-2회 성관계를 가진다고 응답하였으며, 70%의 커플이 첫 만남 이후 성관계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전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혼전 성관계가 더욱 빈번하고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커플 내 성관계 상황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첫 성관계 시 남성의 74%, 여성의 78%는 피임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과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남성의 33.4%, 여성의 39.6%가 피임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과(정희정, 2001), 이 후 남성 53%, 여성 58.3%가 피임을 한 것으로 응답한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황신우, 2009), 피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교제에서도 미혼커플 약 65.5%는 거의 항상 피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선행연구에서 36%가 거의 항상 피임을 한다고 하였으나(이임순, 박은희와 이정재, 2006; 정희정, 2001), 최근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66.3%가 항상 피임을 하고 있어(조승희, 2011), 피임실천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임 방법으로는 주로 콘돔과 질외사정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 2003; 황신우, 2009). 피임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남성의 70%, 여성의 58%는 콘돔, 피임약, 임플라논 등 안전성이 높은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남성의 30%, 여성의 42%는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 또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있어 안전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본인 또는 상대방의 임신경험은 8%로, 기존의 연구결과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이임순, 박은희와 이정재, 2006; 허명행 등, 2007), 인공임신중절의 43%가 미혼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고는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와 연세대학교, 2011). 미혼남녀의 피임실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보다 안전한 방법의 실천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피임과 관련된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커플 내 피임 방법의 선택을 분석한 결과, 선호하는 피임 방법과 실제 사용 피임 방법의 일치도에서 남녀 차이가 없었으며, 실제 사용 피임 방법이 일치한 68커플 중 남성의 23.5%가 여성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여성의 16.2%는 남성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피임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피임에 대한 지식 정도는 높지만 성관계 시 피임이 여전히 남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반대로(최정현, 김경은과 신미아; 2010), 피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남성의 63.9%, 여성의 70%는 본인이 결정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황신우, 2009), 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 여성의 성에 대한 주체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커플의 성태도는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손애리와 천성수, 2005; 이선희 등, 2000; Hendrick & Hendrick, 1987), 본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나타난 것은 남성의 경우 교제 외의 성관계에 대해 여성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며, 교제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여성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는 남성들에게 여전히 성의 이중기준이 남아있지만, 전반적인 성의 개방화로 인해 이러한 이중기준이 많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 간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성적모순 현상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혼

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성행동은 자신의 성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정희정, 2001).

성적 자율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김경원, 강경화와 정금희, 2012; 장순복과 이미경, 2003; 최명숙과 하나선, 2004). 여성의 성적 자율성이 높은 것은 성관계로 임신이 될 경우나 유산, 출산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김경원, 강경화와 정금희, 2012; 이해경, 2005; 장순복, 2002; 최명숙과 하나선, 2004; 황인명, 2009). 하지만 첫 성관계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우 33%가 상대방이 요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자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피임실천이나 피임 방법의 선택에 있어 첫 성관계 상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녀는 성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의 의미 변화를 겪게 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인하게 되면서 스스로를 개별적으로 의식하는 과정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첫 성관계 경험은 미혼남녀에게 향후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고려할 때(박수선, 2009), 첫 성관계 이후 인식과 행동에 변화를 경험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이 첫 성관계 후 현재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 관련요인

현재 성행동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박수선, 2009; 전윤경, 2005), 미혼남녀의 과거 성행동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여 성태도, 성적 자율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커플 수준에서 현재 교제와 관련된 성행동 특성과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이 어릴수록, 피임 빈도는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성관계 상대자 수가 많을수록 피임 빈도가 낮고,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할수록 피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실제로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는데(Hawes, Wellings, & Stephenson, 2010), 첫 성관계 연령이 추후 콘돔사용의도의 유의한 예측인자이며(정유미, 2003), 첫 성관계 경험이 늦었던 대상자일수록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고려와 실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남성에게 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에 피임의 중요성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며,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다.

여성의 경우 첫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임신경험도 낮고, 피임 빈도가 높으며,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첫 성관계 시 얼마나 자신의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향후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성적 상황에서 얼마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20대 미혼남성을 대상으로 콘돔사용의도를 예측한 연구에서 과거의 콘돔사용 경험이 콘돔사용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고(정유미, 2003), 첫 성관계 시 피임을 한 경우 추후 피임실천이 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황신우, 2009).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첫 성관계 시 피임 방법이 현재 교제의 피임 방법과 관계가 있다는 점은, 여성이 첫 성관계를 경험할 때 안전한 피임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워주는 것이 향후 교제에서 직면하게 되는 성적인 상황에서 보다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현재 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남성의 성관계 빈도가 높았으며,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이 어리고, 성관계 상대자 수, 성관계 빈도가 많을수록,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며,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이성교

제 경험,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상자 일수록 성에 대한 허용성이 높는데(성미혜, 2009), 남녀 모두 성관계 경험이 많을수록 이성교제에서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개방된 성문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성병이나 원치 않는 임신 등의 문제가 발생가능 하기 때문에, 커플 내 성관계가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고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관계 상대자 수가 많고, 성관계 빈도도 높다고 하였는데(정희정, 2001), 본 연구에서도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남녀 모두에게서 첫 성관계 연령이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의 경우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관계 빈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커플 내 성태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방적인 남녀가 커플인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커플로 한정하였으며, 커플남녀 모두가 설문에 참여해야 하는 특성 상 커플 내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고, 실제 커플 중 한 명만 참여한 경우도 119명으로 커플 중 성태도가 보수적인 경우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가 모두 성적인 부분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플의 성태도가 서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성태도의 차이는 커플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남녀가 커플이 되었을 때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은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았고, 여성은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았으며,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 자율성은 피임실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상대방이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의 피임실천과 관련이 있었다. 성적 자율성은 커플 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적 자율성이 높은 남녀가 커플인 경우가 많았

다. 특히 여성에게서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관계 경험자 중 임신예방, 성병예방 조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성적 자율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순복과 이미경, 2003). 따라서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성의 콘돔 사용의도 및 콘돔 사용에 있어서 파트너의 의견에 비중을 두며 파트너가 긍정적으로 지지해 주는 경우 증가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파트너의 지지가 콘돔 사용 자기효능감 및 콘돔 사용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콘돔 사용 의도와 콘돔 사용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유미, 2003). 본 연구 결과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증가하며, 남녀 모두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커플 내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안전성이 높은 피임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상호책임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강희선, 2001). 본 연구에서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상대방의 안전한 피임 방법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개인수준에서 상대방의 지지가 피임 방법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적 자율성은 커플 내 안전한 성관계의 실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관계 시 피임의 실천을 높이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율성이 높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커플 내 성관계 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주요한 요인은 피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피임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들이 성적인 상황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표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제한이 있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현재 교제 중인 미혼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남성 또는 여성을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거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커플 내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여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미혼커플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20-34세의 미혼커플 200명(100커플)을 대상으로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조사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실제 미혼남녀들의 성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교제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교제 내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3월 5일에서 2013년 4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커플의 성행동은 통계적으로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성관계는 빈번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미혼커플의 65.5%는 거의 항상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거보다 피임실천이 증가하고 있어 피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성의 30%, 여성의 42%는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과 같은 안전성이 낮은 피임 방법을 사용하거나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플 내 피임 방법의 선택에 있어 본인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을 실제 사용하고, 상대방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을 따르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개방적이었으며, 성적 자율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첫 성관계 연령이 어릴수록, 첫 성관계 시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피임 빈도가 낮았다. 또한 성관계 상대자 수가 많을수록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피임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첫 성관계 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할수록 임신경험도 적고, 피임 빈도가 높으며,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커플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첫 성관계 연령이 빠르고 성관계 상대자 수도 많았다.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 빈도가 높았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의 성적 자율성은 상대방이 안

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커플 내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태도가 개방적인 남녀가 교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 자율성이 높은 남녀가 교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초혼 연령의 지연으로 이성교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미혼남녀들의 혼전 성관계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성행동이 보다 증가하여 남녀 차이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이 과거보다 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성관계는 빈번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피임 빈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으나 여전히 일부는 안전하지 못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피임 방법의 실천을 위해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혼남녀의 첫 성관계 경험은 추후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에 성적 자율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미혼남녀들이 안전한 성행동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성적 자율성이 높을수록 피임실천을 잘하고,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대방의 피임실천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커플을 대상으로 안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여 피임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안전한 성행동의 실천으로 미혼남녀들의 건강한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남녀의 안전한 성문화 형성을 위해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언한다.
- 2) 본 연구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향후 커플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적 의사결정 단계에 미치는 상호작용에 대해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3) 본 연구는 커플의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의 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커플의 관계 만족도나 관계의 질이 커플 내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희선 (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경원, 강경화, 정금희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성적 자율성.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6(1), 51-63.
- 김계숙 (1999). *여성의 성건강 개념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연주 (2006).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성적의사결정능력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북.
- 김진희, 김경신 (2008).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123-138.
-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김현경 (2003). *프로젝트로서의 '연애'와 여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여자 대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선미 (2009).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박수선 (2009).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47-166.
- 박지현 (2004). *대학생 커플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대화에 따라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저자.
- 성미혜 (200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유형과 성의식, 성행동 및 성충동.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1), 73-80.

- 손애리, 천성수 (2005).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18, 73-100.
- 송혜성 (2006). *여대생의 성과 자기주장성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남.
- 신경림 (2011). *대학생의 성태도 실태조사*. 한국건강증진재단.
-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학 사회*, (13), 6-43.
- 안경애 (2003). 여대생의 이성 교제 중 갈등표출행동 유형과 영향요인. *간호과학*, 15(1), 50-60.
- 유의숙, 박경 (2004). 이성교제에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의 응낙에 대한 설명모형 -대학생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6(4), 793-812.
- 이경은 (2006). *대학생의 성행동-태도 일치도 및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선경 (2001). 이성교제를 하는 십대 여학생의 성접촉과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2), 212-228.
- 이선희, 한성현, 이명선, 조희숙, 채유미, 유승현 (2000). 미혼남녀의 성행태 및 성의식 관련 요인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17(2), 1-15.
- 이은숙, 강희순 (2010).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66-275.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이 등 (2009). *간호연구와 통계분석*. 서울: 수문사.
- 이임순, 박은희, 이정재 (2006). 한국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의식 실태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 49(1), 157-167.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17(2), 419-436.
- 이혜경 (2005). *대학생의 성격유형(MBTI)에 따른 성적 자율성*.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남.

- 장순복 (2002).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 측정도구 개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106-115.
- 장순복, 유명숙, 이선경 (2001). 십대 여학생의 성 관련 경험과 자기주장.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3), 305-316.
- 장순복, 이미경 (2003). 대학생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3(3), 339-346.
- 전윤경 (2005). *성행동-성태도 일치도와 성별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저자.
- 정유미 (2003). *20대 미혼남성의 콘돔사용 의도 예측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정희정 (2001). *미혼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 조승희 (2011). *이성교제를 경험한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조인형 (2007). *대학생의 교제변인, 애착유형, 데이트 관계의 질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충북.
- 질병관리본부 (2012). *우리나라 성병 감시체계 및 국내 발생 현황*. Retrieved August 25, 2012, from <http://www.cdc.go.kr/CDC/notice/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0004-MNU0036-MNU0037&cid=12174>
- 질병관리본부 (2013). *성매개 감염병 연령별 통계*. Retrieved July 22, 2013, from <http://is.cdc.go.kr/nstat/jsp/observation/stat/sot/STATSOT0902List.jsp>
- 최명숙, 하나선 (2004).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0(4), 318-330.
- 최명현 (2004).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 관련 요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최인숙 (2009). *Hendrick 다차원적 성태도 척도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정현, 김경은, 신미아 (2010). 대학생의 피임지식 및 피임태도와 피임사용에 관한 연구: 대학생의 성별, 연령집단, 거주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9(3), 511-522.
-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인구부문)*. Retrieved May 31, 2011, from http://kosis.kr/metadata/main.jsp?c_id=1962001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2012).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서울: 저자.
- 한경순, 함미영 (2000). 일개 대학 대학생들의 성지식, 태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6(1), 115-131.
- 허명행, 안혜영, 곽은아, 김경미, 박지영, 이제일라 (2007). 대학생들의 성행동 및 피임지식과 태도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7(3), 267-275.
-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황신우 (2009). *미혼남녀의 피임실천행위와 관련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황인명 (2009). *중, 고,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적 자율성, 성태도 및 미혼모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Auslander, B. A., Perfect, M. M., Succop, P. A., & Rosenthal, S. L. (2007). Perceptions of sexual assertiveness among adolescent girls: Initiation, refusal, and use of protective behaviors. *Journal of Pediatric and Adolescent Gynecology*, 20, 157-162.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 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 1-12.
- Burke, T. J. & Young, V. J. (2012). Sexual transformations and intimate behaviors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 research*, 49(5), 454-463.
- Coliins, W. A. (2003). More than myth: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romantic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1), 1-24.
- Diclemente, R. J., Wingood, G. M., Crosby, R. A., Sionean, C., Cobb, B. K., Harrington, K., et al. (2002). Sexual risk behaviors associated with having older sex partners: A study of Black adolescent femal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29(1), 20-24.
- Hacher, R. A., Trussell, J., Nelson, A. L., Cates, Jr. W., Stewart, F. H., & Kowal, D. (2007). *Contraceptive technology*(19th ed.). New York, NY: Ardent Media.
- Hawes, Z. C., Wellings, K., & Stephenson, J. (2010). First heterosexual intercourse in the united kingd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sex Research*, 47(2-3), 137-152.
- Hendrick, C., Hendrick, S., & Reich, D. A. (2006). The brief sexual attitudes scale. *Journal of Sex Research*, 43(1), 76-86.
- Hendrick, S. & Hendrick, C. (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23(4), 502-526.
- Hendrick, S., Hendrick, C., Slapion-Foote, M. J., & Foote, F. H. (1985).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48, 1630-1642.
- Jones, R.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exual pressure scale.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9, 281-293.
- Kaler, A. (2004). The female condom in North America: Selling the technology of empowerment. *Journal of Gender Studies*, 13(2), 139-152.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 G., Pamela, R. G., & Gary, J. B. (1997). Sexual assertiveness

-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Robinson, W. L. & Calhoun, K. S. (1984). Assertiveness and cognitive processing in interpersonal situations. *Journal of Behavioral Assessment*, 6(1), 81-96.
- Santos-Iglesias, P., Sierra, J. C., & Vallejo-Molina, P. (2012). Predictors of sexual assertiveness: The role of sexual desire, arousal, attitudes, and partner abuse. *Archives of Sexual Behavior*. Doi: 10.1007/s10508-012-9998-3.
- Worth, D. (1989). Sexual decision-making and AIDS: why condom promotion among vulnerable women is likely to fail. *Studies in Family Planning*, 20(6 Pt 1), 297-307.

부 록

부록 1. IRB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Fax : 82-2-765-4103
<http://nursing.snu.ac.kr>

연구대상자보호심의결과 통보서

승인번호: 2013-15

연구제목: 미혼커플의 교제특성, 성태도, 성적자율성

책임 연구자: 정미라

연구 기간: 2013년 2월 12일 ~ 2014년 2월 12일

위 연구는 연구 대상자 선정과 연구 절차에 있어서 연구 대상자에게 위험성(또는 맹검성)을 최소화 했으며 연구 대상자 신원보호와 연구 참여 동의서 양식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어 연구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환자, 간호사)에게 연구과정 중에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도록 권고합니다.

단,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연구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3월 5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장



부록 2. 연구동의서

미혼커플의 성행동, 성태도와 성적 자율성을 위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최근 미혼 남녀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성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결혼 전 성관계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성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실제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성행동, 성태도, 성적 자율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건강한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성교제 및 성 경험과 관련된 질문이므로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이 본 연구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설문은 응답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실시됩니다. 응답도중 불편하시거나, 더 이상 설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 연구를 자유롭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에 예상되는 소요시간은 10분-15분 정도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의 비밀이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커플 내 비밀유지를 위해 각각 따로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설문에 참여하시는 분이 무작위로 생성된 4자리의 ID를 부여받으시면, 상대방이 동일한 ID로 접속하여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응답한 설문 외에 상대방의 응답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통계분석에 사용되며,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되어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 후 WebSite는 폐쇄될 예정이며,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 모든 응답내용은 폐기처리 될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커플 내 성관계를 전제로 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연구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설문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
연구자 정미라 e-mail : miss0910@snu.ac.kr / H.P : 010-0000-0000

부록 3. 설문지

1. 일반적 특성

- 1) 성별 : 남 여
- 2) 연령 : 만()세
- 3) 학력 : 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 이상 기타
- 4) 직업 : 학생 직장인 무직
- 5) 종교 : 유 무
- 6) 주거상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자취(혼자) 자취(형제자매/친구와 함께)
 기타(예:동거)

2. 성행동

- 1) 첫 이성교제 연령은? 만()세
- 2) 첫 성경험 연령은? 만()세
- 3) 첫 성경험이 이루어지게 된 상황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상대방은 망설였지만, 내가 강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졌다.
 나는 망설였지만, 상대방이 강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졌다.
 기타 ()
- 4) 첫 성경험 시 피임 방법은?
 피임안함 콘돔 피임약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 기타()
- 5) 현재까지 몇 명의 이성과 교제를 하였습니까? ()명
- 6) 현재까지 몇 명의 이성과 성관계 경험이 있습니까? ()명
- 7) 현재까지 성병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8) 현재까지 임신경험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 이성교제 중 여자친구가 임신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9)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개월
- 10)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연령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내 남자친구 / 여자친구는 나보다 ()세 연하이다.
 내 남자친구 / 여자친구는 나보다 ()세 연상이다.
 나와 내 남자친구 / 여자친구는 동갑이다.
- 11)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성관계 빈도는 어떠합니까?
 주1회이상 월1-2회 2-3개월에 1회 1년에 몇 번 단1회
- 12)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피임을 합니까?
 안 한다 가끔 한다 거의 항상 한다.
- 13) 본인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임안함 콘돔 피임약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 기타()
- 14)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무엇입니까?
 피임안함 콘돔 피임약 질외사정법 생리주기법 기타()
- 14-1) 본인이 선호하는 피임 방법과 실제 피임 방법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5) 현재 남자친구 / 여자친구와 첫 만남 후 성 접촉 정도를 기간에 따라 표시해 주세요.

문항	30일 이내	100일 이내	100일 이후	1년 이후
손을 잡았다				
포옹을 했다				
뽀뽀를 했다				
키스를 했다				
가슴을 중심으로 애무를 했다				
성기를 중심으로 애무를 했다				
성관계를 했다				

3. 성태도

다음은 성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줄 필요는 없다.					
우발적인 성관계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질 의향이 있다.					
하룻밤만의 정사(one-night stand)도 가끔은 즐길 만하다.					
동시에 한 명 이상과 성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괜찮다.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단순히 호의를 교환하는 의미의 성관계도 괜찮다.					
가장 좋은 성관계는 부담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성관계를 나눌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육체적인 해방감만을 느끼기 위한 성관계도 괜찮다.					
피임은 책임 있는 성행동의 한 부분이다.					
여성도 피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					
남성도 피임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해야 한다.					
성관계는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 중 가장 친밀한 형태이다.					
깊이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성적 행동은 궁극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이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가장 좋은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두 영혼을 융합하는 것이다.					
성관계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성관계가 없는 인생은 매우 지루할 것이다.)					
성관계는 보통 강렬하고, 거의 압도당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즐거움에 집중할 때의 성관계가 가장 좋다.					
성관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성관계의 주목적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성관계는 근본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다.					
성관계는 근본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신체 기능이다.					

4. 성적 자율성

다음은 성적 자율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이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한다.					
나는 성관계를 원할 때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요구 시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나는 성관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한다.					
나는 성관계 시 임신예방을 위해 피임을 요구한다.					
나는 성관계 시 성병예방을 위해 피임을 요구한다.					
나는 나의 성적 본능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항하여 불쾌한 느낌을 표현한다.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다.					
나는 성적욕구 해결 시 상대방에 미치는 결과를 고려한다.					
나는 결혼 전 임신 시 유산을 할지 아기를 낳을지 결정할 수 있다.					
나는 성병 감염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나는 성병에 걸렸다면 다시 걸리지 않게 예방에 힘쓸 것이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Abstract

Sexual behaviors, attitudes and autonomy of unmarried couples.

Mira Jung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nsook, Lee, Ph.D., RN.

This descriptive study explored the sexual behaviors, attitudes, and autonomy of unmarried couples and identified the correlations among these variables to provide basic sexual data on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the goal of obtaining a safe sexual cultu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smart phone web survey of 100 pairs of unmarried men and women living in various regions, such as Seoul, Gyeonggi, Daegu, Ulsan, and Busan. The subjects ranged in age from 20–34 years and the couples had sex periodically with good relationships, although they were not married. From 5 March to 7 April, 2013, the unmarried couples in the study agreed to answer a smart phon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chi-square test, t-test,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OVA and Duncan post-hoc test using SPSS 20.0 for Window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no sex differences in the unmarried couples' first dating age, first sexual intercourse age, number of dating partners, and number of sexual partners. Of the unmarried couples, 51.5% had sex more than once a week and 41% first had sex within 1 month of starting their relationship. Of the unmarried couples, 65.5% used contraception. The most common contraception method was condoms, which accounted for 59.5%. Overall, 75% of the men and 73% of the women said that they used the contraceptive methods that they preferred mos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traception method decisions between unmarried men and women.
- 2) The average sexual attitudes score of the unmarried couples was 65.57 for men and 59.82 for women, implying that men had a more open sexual attitudes($t=3.89$, $p<.01$). The average sexual autonomy score of the unmarried couples was 52.67 for women and 50.89 for men, implying that women had greater sexual autonomy($t=-2.07$, $p<.05$).
- 3) Men were younger when they first had sex, used more unsafe methods of contraception at first intercourse($r=.22$, $p<.05$), and used contraception less frequently($r=.22$, $p<.05$). The greater the sexual autonomy men had the more contraceptive methods they used($r=.23$, $p<.05$).
- 4) For women, those who used safer methods of contraception at first intercourse, experienced pregnancy less($r=-.21$, $p<.05$), showed high frequency rates of contraception($r=.30$, $p<.01$), and used more reliable contraceptive methods($r=.28$, $p<.01$). Women

with high sexual autonomy used contraception frequently($r=.31$, $p<.01$) and pursued safe contraception methods($r =.28$, $p<.01$).

- 5) In couples, sexual attitudes and autonomy were correlated between the sexes, *i.e.*, someone with an open-minded sexual attitudes tended to have a partner with a similar attitudes($r=.27$, $p<.01$). Likewise, if one had high sexual autonomy, the partner also had high sexual autonomy($r=.21$, $p<.05$). In addition, when females used contraception frequently($r=.37$, $p<.01$) and had high sexual autonomy scores($r=.33$, $p<.01$), men used safer contraceptive methods.

In conclusion, the unmarried couples showed no gender differences in their sexual behaviors. Premarital sex occurs more frequently and sooner in today's society. Sex involves the interaction of two persons. Therefore, sexual autonomy for many couples needs to be improved by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that include safe contraception methods and practices. This education program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sexual health of unmarried couples.

Keywords : unmarried couples, sexual behaviors, sexual attitudes, sexual autonomy

Student Number : 2010-20440